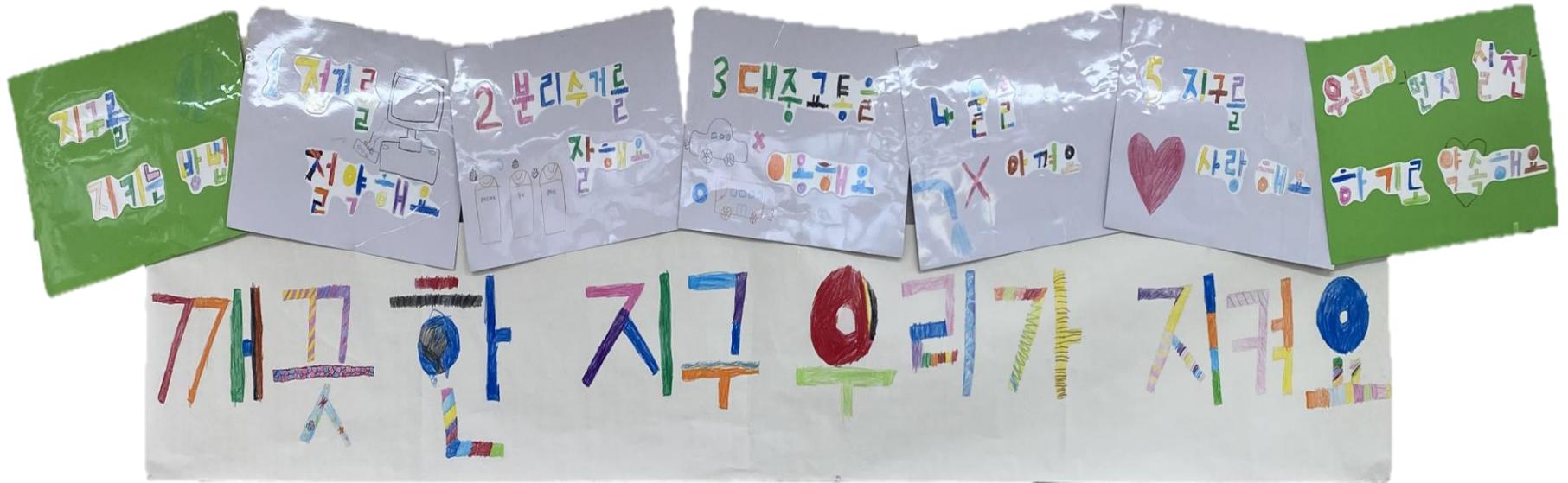


봄을 찾아 온 '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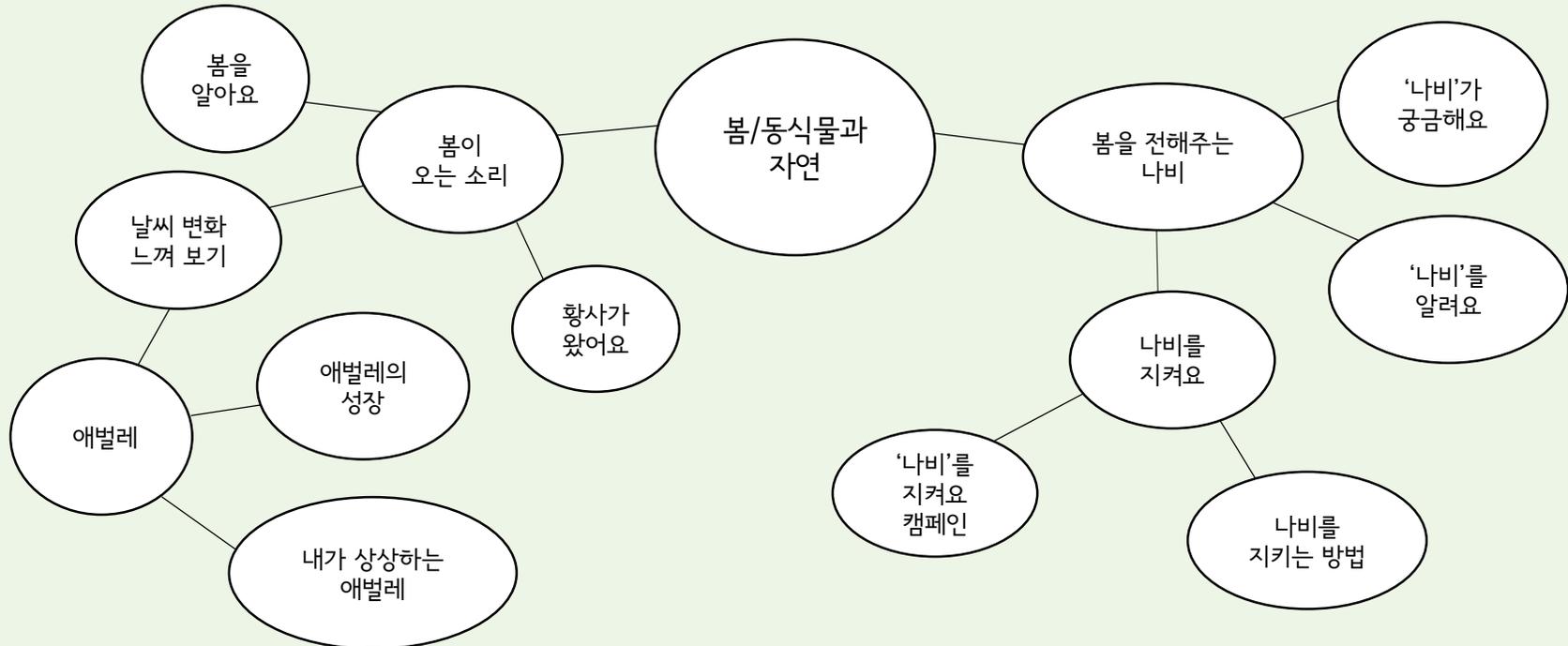


2021.04.12.~2021.05.21.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의 '나비와 함께한 봄'

봄을 찾아 온 '나비'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자연은 유아들에게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놀이터입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실외활동을 즐기던 유아들은 새싹, 꽃, 곤충들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우리 놀이터에서 봄을 찾아볼까?” 놀이터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봄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애벌레’를 보고 호기심을 보여 이 주제로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4.12. ~ 05.21.)



“애벌레가 꿈틀꿈틀거린다!”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깥 놀이터에 나가요~”라며 날씨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 아이들과 함께 바깥 놀이터에 나가 봄이 왔음을 느끼고 포근한 날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이를 하던 도중 “애들아 여기 애벌레다!”라며 흙 속에 숨어있는 애벌레를 발견하고 애벌레를 바구니 속에 넣어 친구들과 함께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애벌레’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애벌레는
무엇을 먹고
살지?

여기 흙 속에
숨어있어!

“우리가 함께 찾은 애벌레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떤 곤충의 애벌레일까?”

내 손바닥
위에 애벌레가
있어!

이 애벌레도
나비가 될 것 같아~

우리 삽으로
조심조심
흙을 파보자!



내가 바구니를
가져 올게!

조심해!

흙 속에서 찾은 애벌레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관찰해보며 호기심을 가져 친구들과 함께 애벌레의 이름을 지어주고, 집도 만들어주며 즐겁게 놀이하였습니다.



애벌레 집을
만들어주자!

그럼 우리 이
애벌레가 나비
가 될 때까지
키워주자!

애벌레가 먹을 수
있도록 나뭇잎도
가져다 주자!



내가 키우는 애벌레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무늬가 있는 애벌레를 키우고 싶어요!”

바깥놀이터에서 만난 애벌레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해 나갑니다.

종이, 블록, 입체 구조물 등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벌레를 만들어가며 애벌레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눈을 직접 그려 주었어요!



다양한 색지와 꾸미기 재료를 활용해 긴 막대 모양의 색지를 동그랗게 말아 붙여 연결시키고 내가 상상한 애벌레의 모습을 자유롭게 꾸며 나만의 애벌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벌레 숨겨주자!

애벌레 집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만든 애벌레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애벌레에게 집도 만들어주고, 애벌레를 숨겨 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놀이도 해보았습니다.

애벌레가 자라면...

"애벌레가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애벌레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애벌레가 성장한 나비의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해보았어요. "애벌레가 잎사귀 먹고 커지면 튼튼한 나비가 될거야!"라며 애벌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미술 활동으로 표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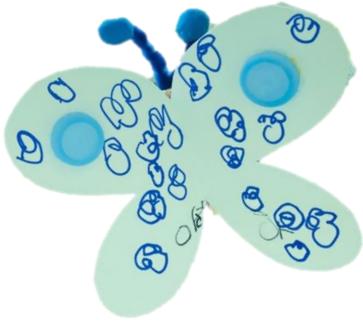


사인펜으로 애벌레 더듬이를 그려주었어요!



나뭇잎 모양의 색지 위에 여러가지 색의 뽕뽕이를 이용해 이어 붙여 애벌레를 만든 후, 자유롭게 꾸며주고 애벌레가 갉아 먹은 잎사귀를 표현해주었습니다.

난 황금 나비를 만들거야~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나비'를 알려요~

"나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자!"

지금까지 우리가 놀이하러 알게 된 '나비'에 대한 정보들을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이들과 함께 나비에 관한 정보가 담긴 책을 만들기로 하여 '나비 백과 만들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비 이름의 유래, 나비 생김새, 특징, 우리나라 나비 종류, 나방과 나비 차이, 나비 성장과정 등을 그림과 글로 적어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나비 백과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나비가 왜 점점 사라지는 걸까?”

자유놀이시간에 미술 영역에서 다양한 나비를 그리던 도중 “나비를 그리니까 또 나비가 보고싶어요”라며 꽃밭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을 앞으로 자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나비가 건강 해야 해요”라고 이야기하며 나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여 나비를 지키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첫번째 문제 -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해요.



두번째 문제 - 전기 콘센트의 전원을 켜 놓아요.



세번째 문제 -자전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나비아, 어서 피해!"

나비와 친구가 된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나비를 걱정합니다. "나비도 우리처럼 마스크 해야겠다!"며 나비에게 미세먼지 있는 날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나비에게도 매일매일 미세먼지가 있는 날을 알려주어서 나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며 '미세먼지 알림판'을 만들었습니다.

나비가 볼 수 있게 집 밖에 걸어 둘래요~



나비가 볼 수 있게 아침마다 표시 해줄거예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보통이에요!



좋음, 나쁨, 매우 나쁨, 보통 글씨를 적으며 매일 매일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 줄 다양한 표정도 함께 그려주어 미세먼지 알림판을 완성하였습니다.

내가 자연 지킴이가 된다면?

내가 자연지킴이가 되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며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나비를 지키자!"

우리가 좋아하는 '나비'뿐만 아니라 여러 동식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며 친구들과 마음을 모아
나비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 지킴이가 되기로 했어요.

나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연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르며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게임을 통해 분리수거 방법을 익히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을
지켜야해요!



‘나비를 지켜요’ 캠페인



캠페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자연을 보호하여 나비를 지키는
방법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솔기튼튼 2반 친구들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 해야겠다는
마음을 지니며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비를 지켜요’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바깥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애벌레’를 시작으로 어느새 ‘나비’까지 이어져 나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비’ 뿐 아니라
나아가 자연보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튼튼유치원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함으로써
실천력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여 꾸준히 자연보호에 앞장서길 바랍니다.